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4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얼음 깨기

감정

교회행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 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아주 익숙한 감정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게 어떤 감정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지요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당황스럽고 힘든 감정도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와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인데 그동안 많이 무시하고 지낸 것 같아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분주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지요

찾아오는 감정에 하나 하나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잠시 그것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감정은 신호와도 같아서 무시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답니다. 찾아오는 감정 모두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1. 일주일 동안 나에게 찾아왔던 감정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2. 왜 그런 감정이 찾아 왔는지 나눠보세요.

4월

7일 진공춧 양육 2기 시작

5월

5일 어린이 주일
"히즈쇼 뮤지컬"

12일 김성중 교수와 함께하는
온세대 연합예배

경배 찬양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에 증인 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 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사네

소식

1. 기니비사우 성경

아프리카 최빈국 기니비사우에서 모슬렘 종족인 수수, 날루족 현지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광미정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인쇄 보급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 권당 1만원의 인쇄비와 배송비가 들어갑니다. 성경을 선물하는 사역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계좌 신한 134-004-691397 더온누리교회(기니비사우통장)

2. 주차

교회 주변 상가 주차장, 상가 앞 도로에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찬양대원

2부예배 글로리아찬양대에서 소프라노파트와 엘토파트를 모집합니다.

선교

[윤지상 선교사]

필리핀

1. 선교사님 가정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2.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도록
3. 둘째 아이 자폐성 발달장애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한문장 큰 울림

"먼저 스스로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다른 사람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

- 토마스 아 캠퍼스 -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 103:17-18)

시편 103편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베풀어지기 까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입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가요?

1_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더 큰 죄를 꾸미고, 실행합니다. 완전 범죄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은 죄악이 발견 되었을 때,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며,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통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들에게 배반당해 쫓겨나가는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이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배신으로 인해 극심한 좌절 가운데 있는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 4:1)”

다윗은 곤란한 가운데에 이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_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약속이 자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열매 맺히기 까지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중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도의 과정 가운데 내가 당하는 수치, 배반, 좌절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다시 베풀어 주실 것 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슴 깊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삶의 증거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1] 죄, 수치, 배신, 절망에 사로 잡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눔2]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인자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라 / 시편 103:15-22]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순종함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순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민감함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